

숲의 흔적과 사람의 기억, 인문으로 마을 잇다



(사) 숲살림협회가 최근 (재) 아시아인문재단 1층 강의실에서 ‘숲속 흔적 탐험-흔적으로 보는 야생동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인문재단, 12월까지 주민 실천 프로 ‘광주답게’ 구술·생태·치유·공존 등 현안 바탕 9팀 12개 운영 지역 인문자산 발굴·축적 목표...디지털 아카이브도

숲길에 남은 작은 발자국 하나가 이야기가 된다. 나무 아래 떨어진 뽕과 먹이 흔적, 동물의 똥과 보금자리란 그냥 지나치면 사라질 자연의 흔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 곁 숲에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단서로 작용한다.

마을의 오래된 기억 역시 마찬가지다. 한 어른의 삶은 개인의 추억에 머물 수 있지만, 청년 기록자가 묻고 들으며 적어 내려가면 한 시대와 마을을 증언하는 인문 자산으로 남는다. 숲의 흔적과 사람의 생애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다시 지역 공동체의 자원이 되는 사업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아시아인문재단(김성중 이사장)은 지역 주민 참여형 인문 실천 프로젝트 ‘2026 지역 인문 실천-광주답게: 인문, 사람과 마을을 잇다’를 본격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한 ‘2026 지역 인문 실천-○○답게 운영단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말 시작해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광주답게’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인문적 관점으로 해법을

모색한 뒤 실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문을 강연이나 교육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기록과 실천, 관계 회복과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해 지속가능한 지역 인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프로젝트는 개인과 단체 9개 팀이 참여해 마을 역사 구술기록, 지역 전통문화 복원·계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생·화합, 다문화 공존, 사회적 관계망 회복, 근현대 이행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기후·생태 위기 극복, AI·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과 맞닿은 12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하나인 ‘숲속 흔적 탐험-흔적으로 보는 야생동물’은 시민들이 숲에서 발견한 동물의 발자국, 똥, 보금자리, 먹이 흔적 등을 바탕으로 야생동물을 유추해보는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동물의 뼈를 관찰하고, 그 흔적을 바탕으로 어떤 움직임을 생각해 특징을 보였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연 관찰을 넘어 지역 생태 정보를 축적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이 직접 확인한 흔적을 정리하고 데이터화함으로써 우리 곁의 숲에

사는 야생동물에 대한 인문·생태 기록을 만들어간다.

세대 교류 프로젝트인 ‘인생 도서관에 가다-회고록 쓰기’도 눈길을 끈다. 지역 청년 인문 활동가와 마을 어른신이 1대1로 만나 삶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정기적인 구술 활동을 통해 원고지 50매 내외의 회고록을 완성하고, 이를 회고집으로 발간한다. 이렇게 제작된 회고록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웹툰 등 2차 콘텐츠 제작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종료 뒤에는 구술집과 인터뷰 사진·영상, 음성기록, 참여자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세대교류 활동 전 과정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다.

회고록 제작은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에서 살아온 어른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마을의 변화, 공동체의 역사, 세대의 감각을 함께 기록하는 작업이다. 활동 전 과정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돼 사라져가는 마을의 인문자산을 공공 자원으로 남기는 데 활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 인문·다문화 축제, 청소년 명상캠프 ‘랄라라~ 마음 숲 명상캠프’, 무등산 백색 숲 명상 페스티벌 ‘숨, 숲, 그리고 나’, 전통문화와 마을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문화제 ‘무등산 천제-열리는 새 하늘’ 등 AI·디지털 기반 마을 인문자산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시아인문재단은 12개 사업을 기획·보존, 치유, 공존, 전환 프로젝트 모델로 구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순환하

는 협업 네트워크로 운영해나간다. 각각의 사업이 따로 흩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발굴과 인문적 속의, 주민 참여형 실행모델 설계,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문학교육연구소를 비롯해 사단법인 숲살림협회, 극단 갯돌, 해양문명원, 남도 문화자원연구원, 사단법인 내뽕소리민족예술단, 이스트 쇼셜, 박동기 현대사연구가, 이준석 화가 등 9개 단체·개인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아시아인문재단은 오는 11월 말에는 성과 보고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결과물을 공유해 인문 실천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정영대 담당자는 “지역 인문 실천은 주민이 자신의 삶과 마을을 스스로 해석하고 기록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다운 인문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과 마을을 잇는 지속 가능한 인문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아시아인문재단은 인문학적 가치 확산과 지역 문화자산 발굴, 문화예술 교류·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인문 단체다. 시민 인문학 강좌 ‘무등공부방’을 운영하며 호남과 동아시아의 평화, 남도 르네상스 등을 주제로 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술 강좌, 지역 인문 실천 사업, 전통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신명나는 전통연희로 만나는 ‘팔죽할멈과 호랑이’

전래동화 속 팔죽할멈과 호랑이가 장대 인형극과 전통연희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이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넘기는 익숙한 이야기에 풍물과 탈춤, 판소리의 신명을 더한 무대가 관객을 만난다.

(사)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무등산호랑이 연대기’ 제2편 ‘팔죽할멈과 호랑이 시즌2-호랑이, 나랑 놀자’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래동화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팔죽을 먹고 싶은 호랑이와 위기에 처한 할멈, 그리고 할멈을 돕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장대인형극으로 풀어내고 여기에 전통연희를 결합했다.

작품은 단순히 호랑이를 물리치는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할멈과 호랑이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존재가 갈등을 넘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대에는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비롯해 알밤, 자라, 절구, 쇠뿔, 명석, 지게, 호미, 부지깽이 등 전래동화 속 친숙한 존재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약한 자들의 협동을



(사)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무등산호랑이 연대기’ 제2편 ‘팔죽할멈과 호랑이 시즌2-호랑이, 나랑 놀자’를 선보인다.

‘호랑이, 나랑 놀자’ 22~2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장대인형극·탈춤·판소리 결합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신명나는 움직임과 소리로 표현한다.

공연은 앞놀이와 본공연, 뒷놀이로 이어진다.

공연 1시간 전에는 호랑이 놀이터가 온영대 관객들이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부터

작품 세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본 공연에서는 장대인형과 연희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풍물, 탈춤, 판소리가 어우러진 놀이판을 펼친다.

공연 후에는 관객 참여형 뒷놀이가 마련된다. 소원쓰기, 호랑이 체험, 큰기놀이

등을 통해 어린이 관객이 공연 속 이야기와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큰기놀이와 세이호 퀴즈, 호랑이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호랑이 드레스코드에 참여한 관객에게는 무등산호랑이 굿즈가 제공된다.

공연은 22일 오후 1시30분과 4시, 23일 오후 11시와 오후 3시 열린다. 티켓링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건강한 공동체 위한 시민의 역할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존중·공감 전파 명사 특강

내달 9일 고미숙 작가·30일 표창원 프로파일러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시민과 함께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나누는 특별강연을 마련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2026 광주여성가족재단 지역공감 특별강연-Better Together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미숙 작가와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첫 강연 ‘삶의 전환점에서 다시 묻는 진짜 힘, 통찰과 교감’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열린다. 고미숙 작가는 이 강연에서 지역 여성들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힘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어 ‘스토킹, 교제폭력, 폭력이 이기는 법칙을 해체하라’가 9월 30일 오후 2시 광주여대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운영된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 자리에서 스톱킹과 교제폭력의 실태를 살피

고, 안전한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 안전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해 시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체와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혐오, 관계의 단절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Better Together 시리즈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회적 이슈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고미숙

표창원

“국악인으로서 감개무량한 수상, 소리로 보답할 것”

주소연 명창, ‘제34회 임방울 국악상’ 본상 수상
특별상 김다정...내달 4일 국악제 전야제서 시상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방울 선생님을 기리는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올해 임방울 국악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주소연 명창은 17일 이치림 소감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국악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임방울 국악상 본상 수상자에 주소연 명창을 선정했다.

이어 주 명창은 “제자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안아 더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국악의 전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라는 뜻으로 알고 소리의 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소연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광주시립국악단 상임 차석, 광주KBS 남도예술단 지도위원 등을 역임했다. 판소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지역 국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소리꾼이다.

주소연 명창은 수상 이후에도 바쁜 공연 일정을 이어간다. 오는 9월 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소리열전’ 무대에 오르며, 추석 전날인 23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비파마 판소리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개인 공연인 ‘수궁가’ 발표회를 갖는다.

45세 이하 국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은 김다정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무안군립국악원 단원을 거쳐 현재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와 남도음악연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내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본상 1000만원, 특별상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4일 전남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제34회 임방울국악제 전야제’에서 진행된다.

한편, 통합특별시는 국악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임방울 국악상을 시상하고, 매년 판소리·기악·농악·무용·가야금·병창·시조·퓨전국악 경연대회인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를 개최해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주소연 명창